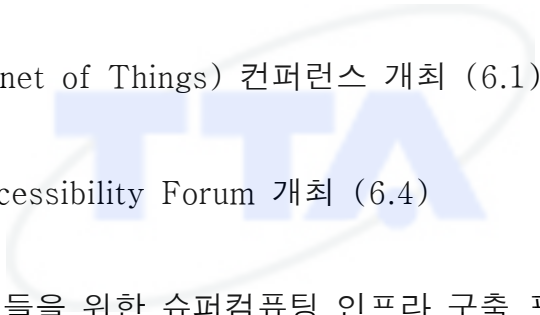

2010 Global Standardization Issue

(6월 1일~30일)

- 
1. 제2차 IoT(Internet of Things) 컨퍼런스 개최 (6.1)
 2. 제4회 유럽 eAccessibility Forum 개최 (6.4)
 3. EU, 유럽 연구원들을 위한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착수 (6.9)
 4. ETSI, 유럽의회에 유럽 표준화 체계의 진화에 대한 입장 전달 (6.22)
 5. NTIA Advanced Radio Technology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6.1)
 6. 일본 경제산업성, 「기술전략맵 2010」 수립에 관하여 (6.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 제2차 IoT(Internet of Things) 컨퍼런스 개최

- 보도날짜 : 2010년 6월 1일
- 기 관 : EC
- 사이트: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SPEECH/10/279&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2010년 6월 1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IoT(Internet of Things) 컨퍼런스에서는 기업리더, 소비자 단체, 정책입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IoT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기회와 위험을 제공할 것인지, 향후 IoT가 어떻게 현실과 가상세계의 상호작용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이 컨퍼런스에서 유럽 디지털의제 위원장인 닐리크로스(Neelie Kroes)는 ‘유럽의 가치를 IoT로’ (Bringing European values to the Internet of Things)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5월 제안된 유럽의 디지털의제는 장기적 디지털화 성공을 위해 유럽 계획을 돕는 포괄적인 전략이다. 이 디지털의제 7대 주요 실행계획의 5개 분야인 상호운용성, 신뢰 및 보안 강화, R&D 장려,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 향상, 사회적 도전과제를 위한 ICT활용에 IoT 개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 Io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우리의 일상에 받아들일 때 옅은 논쟁과 적절한 매개변수를 정해야 한다.
- IoT의 실용단계에서는 R&D와 혁신 투자운영에 도움이 되는 활동분야 규제수준 결속 및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에 관여하며, 다른 국가의 정부들과 함께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제어, 거버넌스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을 해야 함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유럽위원회가 2009년에 발표한 IoT 14개 실행계획에서 거버넌스 메커니즘, 데이터 소유권, 개인정보, 칩의 비활성화에 대한 권리, 표준, 국제적인 범위 분야에 대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포럼인 전문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2. 제4회 유럽 eAccessibility Forum 개최

- 보도날짜 : 2010년 6월 4일
- 기 관 : EC
- 사이트: http://inova.snv.jussieu.fr/evenements/colloques/colloques/62_index_en.html#contenu

2010년 4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4회 유럽 eAccessibility Forum은 유럽에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eAccessibility 목표를 현실화 하기 위한 논의와 장애인, 공공기관 및 업계 사용자로부터 eAccessibility에 대한 최초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프로그램

http://inova.snv.jussieu.fr/evenements/colloques/colloques/EAF2010/proceedings_en.pdf

- eAccessibility에 대한 정책
 - EU의 eAccessibility 일정
 - eAccessibility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 및 기법
 - 웹 품질 프로세스에서의 eAccessibility
 - DILA에서의 eAccessibility 구현
- eAccessibility 장비 지원
 - W3C/WAI 표준을 위한 웹 콘텐츠 창조 및 표시
 - 유럽 eAccessibility에 대한 현재 법규 비교방식
 - 웹 프로젝트에서의 eAccessibility 요구사항 소개
 - 엔드투엔드(end-to-end) 접근성 프로그램에 자동화반영
 - 접근성 표준에의 평가 및 적합성 인증
- 워크숍: 프로젝트 방법론
 - 공공서비스 품질 접근에 접근성 고려
 - 웹 프로젝트 e-accessibility 관리 및 제어를 위한 방법론
- 워크숍: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과 접근성
 - 오픈 오피스와 Odt2DAISY와 함께 Daisy Book 만들기
 - wcag 2.0과 rgaa에서의 Microsoft Sharepoint 2010

- 워크숍: PDF 접근성
 - 게시된 PDF 문서에 액세스하는 방법
 - 액세스할 수 있는 PDF 문서의 대규모 생산

- 시연: 공공서비스와 산업 솔루션
 - Genesys Agent Desktop, 상호 워크숍: eAccessibility를 통한 연락처의 생산성 및 성과
 - Tadeo 시연
 - 이니셔티브: Portanum(시연), AcceDe(THALES 그룹의 액세스 할 수 있는 PDF 디자인을 위한 프로젝트 방법론)
 - Proxima Mobile의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 접근하기 쉬운 퍼블리싱 체인
 - 코스 생산에의 자동화된 접근결과 포함
 - Leibniz - 소설 출판물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 AltText: 쉽고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출판의 미래
 - 액세스 할 수 있는 PDF 문서 제작
 - Microsoft Office 2010 Web Applications, Web2.0 accessible application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문서 제작

- eAccessibility의 사회적 영향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ICT 고등교육 프로그램
 - Genesys Agent Desktop 사례연구: 연락처 어플리케이션을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지원
 - AEGIS 유럽 프로젝트: 오픈소스 라이선스하의 인프라개발, 도구개발, 보조기술

3. EU, 유럽 연구원들을 위한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착수

- 보도날짜 : 2010년 6월 9일
- 기 관 : EC
- 사 이 트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10/706&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nl>

유럽위원회 및 유럽 전역 20개 국가를 연합하여 과학자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슈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RACE (Partnership for Advanced Computing in Europe)가 6월 9일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열린 PRACE에서는 유럽의 슈퍼컴퓨터 용량을 증가시키고 유럽 전역 과학자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5억 유로 규모의 이니셔티브가 착수되었으며, 슈퍼 컴퓨팅 인프라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EU 2020 전략 하에 디지털 의제(Digital Agenda for Europe)의 목표와 부합하여 유럽의 연구 및 경쟁력을 강화

■ 기대효과

- PC 10만대 이상과 맞먹는 컴퓨팅 액세스가 가능하고 초당 1,000조의 연산 횟수에 달하는 수준으로 연산속도 증가 예상
- 빠르고 정확하게 연구가 수행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에너지절감, 고령화 등과 같은 과학 및 기술과제를 해결 할 것으로 예상

■ 참여국가 및 예산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향후 5년에 걸쳐 PRACE 이니셔티브에 각각 1억 유로를 투자 할 예정
- EC는 EU의 7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7th Research Framework Programme)을 통해 7,000aks 유로를 지원할 예정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등 16개 국가는 적은 규모의 자원 및 지식을 지원할 예정

■ 향후계획

- 2010년 8월 1일부터 독일 울리히에 있는 ‘JUGENE’ 시스템을 시작으로 PRACE의 슈퍼컴퓨팅 인프라 활용이 가능
- 2015년까지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 있는 슈퍼컴퓨터들이 유럽전역 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4. ETSI, 유럽의회에 유럽 표준화 체계의 진화에 대한 입장 전달

- 보도날짜 : 2010년 6월 22일
- 기 관 : ETSI
- 사 이 트 : <http://www.etsi.org/website/newsandevents/newsandevents.aspx>

2010년 6월 22일 유럽의회에서 ETSI가 유럽 표준화 체계의 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 EU 내부시장 차원에서 상호운용적이고 원활해야하는 서비스는 점차적으로 전자 서비스 또는 전자통신으로 가능해져야한다. 이런 점에서 EU가 경쟁력에 의존하는 ICT는 직접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관련된다. 진정한 범유럽 서비스시장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은 상호교차척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존재하듯이 표준화에도 경쟁이 있다. ETSI, IETF 또는 IEEE-SA의 예와 같이 직접적인 회원참여가 ICT 부문선정 표준화임을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표준개발은 형식적인 상태 또는 정책결정의 문제가 아닌 산업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채택에 있다.
- ETSI와 ETSI의 회원사들은 SMEs(ETSI의 회원 750명중의 30%)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모델선정과 산업분야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력하게 지원한다. 표준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회비는 2000유로이다. 또한 표준화에 공공기관과 정책 결정자들의 참여가 주요 정책결정과 규정이며 ETSI 모델은 공공기관인 10%의 ETSI의 회원들에게 이를 제공한다.
- ETSI는 70여개의 다수의 포럼과 컨소시엄을 포함한 다른 조직과 협력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포럼 및 컨소시엄의 산출물의 통합을 허용함으로써 작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을 절약시킨다.
- EU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직접회원 표준화단체인 ESO(즉, ETSI)를 가진 독특한 상황에 있다. ETSI는 세계 최고의 지식사회를 이끌고 디지털 의제를 구현함으로써 미래 인터넷분야(IoT와 모바일 인터넷 포함)에서 유럽의 연구 분야에 리더가 되어 투자수익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ESO와 다른 표준화 단체 사이의 훌륭한 협력은 미래의 복잡한 시스템 표준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 ETSI는 상호운용성 테스트 분야에의 세계최고의 도구로 네트워크와 경험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다.

* 참고자료: http://www.etsi.org/WebSite/document/ETSIPositionPaper_22June2010.pdf

5. NTIA Advanced Radio Technology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보도날짜 : 2010년 6월 1일
- 기 관 : NTIA
- 사 이 트 : http://www.ntia.doc.gov/press/2010/ITSconference_06012010.html

NTIA는 2010년 7월 27일 ~ 30일까지 제 11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Radio Technologies (ISART)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스펙트럼 공유기술, 최첨단 기술개발 및 스펙트럼 공유의 정책적 의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2010 ISART Agenda

- Day 1 : 공유 스펙트럼공학 및 정책관련 개요
 - ITS의 역사 및 현재 상태, 동적 스펙트럼 접근을 위한 무선인지, 미국 스마트 무선의 규제동향, 최첨단 스펙트럼 공유기술, 무선인지/DSA 관련 보안문제
- Day 2 : 스펙트럼 효율성, 간섭보호기준
 - 스펙트럼 선점 측정세션 및 간섭보호기준 세션
- Day 3 : 연방정부 스펙트럼 내에서 공유
 - 연방정부 스펙트럼 패널, NTIA의 스펙트럼 testbed, 레이더 대역 공유세션
- Day 4 : 혁신과 연구
 - 비즈니스 패널, 컨텍스트 인지 세션, 리서치세션

6. 일본 경제산업성, 「기술전략맵 2010」 발표

- 보도날짜 : 2010년 6월 10일
- 기 관 : 일본 경제산업성
- 사 이 트 : <http://www.meti.go.jp/press/20100614004/20100614004.html>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학관 전문가의 지혜를 결집해 「기술전략맵 2010」을 발표했다. 제6판이 되는 「기술전략맵 2010」에서는 그린·이노베이션의 강화에 대응한 개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기술 분야를 31개 분야로 확충했다. 이 전략맵은 경제산업성 및 신에너지산업 기술 종합 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연구개발 매니지먼트에 활용되는 것과 동시에, 비전이나 기술적 과제를 산학관에 공유하는 것으로 타 분야·타 업종의 제휴, 기술의 융합 등 이노베이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 「기술전략맵 2010」은 신산업 창조 및 주도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중요 기술을 선택하여 기술목표를 나타내며, 연구개발 이외의 관련 시책을 진행하는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산학관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적 실시의 나침반과 같은 조감도와 같은 로드맵이다.
2. 2005년 3월 제 1판인 「기술전략맵 2005」를 수립·발표한 이후 매년 NEDO의 협력을 얻어 개정을 거듭하여 이번에 제 6판이 되는 「기술전략맵 2010」을 정리했다. 전략맵을 수립에는 NEDO에 설치된 위원회의 제 일선의 젊은 연구원, 사용자, 제조자, 기업의 연구자등 총 874명의 산학관 전문가가 참여했다.
3. 「기술전략맵 2010」에서는 최신 기술동향·시장동향·연구개발성과를 기초로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했다. 이번에는 「신성장 전략(기본방침)」에 나타난 그린·이노베이션에의 대응의 일환으로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 기술 로드맵에서 중요한 18개 기술 분야를 선정해 기술내용 및 연구개발 동향 등을 담았으며, 새롭게 2차 전지분야를 추가해 총 31개의 분야를 선정했다.
4.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부재분야를 재구축해 혁신적 부재의 코어기술(Seed)에 대해출구 이미지(Need)로서 상정되는 제품·서비스를 명확하게 하여 니즈측과 시즈측의 양면으로부터 간과할 수 있도록 한 맵을 신규 채택했다. 주조물 프로세스와 뉴글라스에 대해 책정했으나 2011년 이후 차례차례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약·진단분야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주요 질환에 대해 각 질환치료가 있어야 할 장래상으로부터 도출

되는 기술과제를 명확화 했다.

5. 향후에도 계속해, 경제산업성 및 NEDO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기획·입안·예산요구, 프로젝트 운영 및 기술평가활동 등의 정책 인프라로서 「기술전략맵」이라고 하는 연구개발 매니지먼트·툴을 활용할 예정이다.
6. 또한 「기술전략맵」은 산학관 각각의 연구개발 기획·실시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툴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본 맵은 산업기술에 관한 방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 전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산업계, 학회 및 협회에서 새로운 연구나 기술개발 테마의 발굴, 타분야에 걸치는 공동연구 제휴활동의 검토자료, 지적재산의 유지관리에 도 유익한 지적인프라가 되고 있다. 폭넓게 산학관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타 분야·타 업종의 제휴, 기술의 융합, 이노베이션을 촉진해 갈 것이다.



국외 표준화기구 동향정보 (6월 1일 ~ 30일)

기구 (조 직)	보도 날짜	최 신 소 식	해당 페이지
ITU	6.4	ITU-D, 인도 하이데라바드 실행계획에 동의	
EC	6.1	제 2차 IoT (Internet of Things) 컨퍼런스 개최	1
	6.4	제 4회 유럽 eAccessibility Forum 개최	2
	6.9	EU, 유럽 연구원들을 위한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착수	4
	6.21	제 38회 국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기관(ICANN) 국제회의에서 유럽위원회 부의장 닐리 크로스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 관련 연설내용 유럽 정보사회 정책링크(ISPL) 「ICT 이점 활용」 교육용 소책자 발간 * 참고자료: http://cordis.europa.eu/ictresults/pdf/policyreport/INF%207%200100%20IST-R%20policy%20report-education_final.pdf	
	6.30	유럽위원회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협의시작	
ETSI	6.22	ETSI, 유럽의회에 유럽 표준화 체계의 진화에 대한 입장 전달 * 참고자료: http://www.etsi.org/WebSite/document/ETSIPositionPaper_22June2010.pdf	6
NTIA	6.1	NTIA Advanced Radio Technology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7
ANSI	6.9	ANSI, 2010 세계인정의 날 기념행사 개최	
	6.14	ANSI, 몽골에서 열린 태평양지역 표준회의(PASC) 참가	
	6.16	ANSI, 2011년도 「World Standards Week」 일정 발표	
	6.18	ANSI ASQ 국가 인정 이사회 정부-민간부문 노력에 대한 인정제공	
	6.21	ANSI, 북미 보안제품기구(NASPO) 국가 정체성 검증표준을 위한 킥오프미팅 개최예정	
	6.24	ANSI, 표준화 관련 「Top Issues Tracking System」 포털개설	
NIST	6.9	NIST,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에 원조	
	6.23	미국상무부, 7월 27일 「정보경제관련 사이버보안 및 혁신」 심포지엄 개최 예정	
일본 총무성	6.1	2010년도 「전파의 날·정보통신의 달」 기념 표창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관한 의견모집	
	6.4	ILS 무선국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을 결정하는 고시 등 개정안에 관한 의견모집	
	6.7	제 73회 전국 비상통신훈련 실시	
	6.8	2010년도 제 1회 및 제 2회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제안공모 결과	
	6.9	방송법 관계심사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훈령방안에 관한 의견모집 결과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방안 연구회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모집 결과	
		방송용 주파수사용계획 일부변경 고시방안에 관한 전파감리 심의회에 자문, 답신 및 의견모집 결과	
		207.5MHz 이상 207.5M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특정기지국 개설계획에 관한 인정신청 접수결과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과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관한 전파감리 심의회의 답신과 성령방안 및 관련고시방안에 관한 의견모집결과	

	6.10	제 3회 「전파자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발표회 개최	
	6.11	무선기기 형식검정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관한 의견모집 결과	
	6.15	전파법 관계심사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훈령방안에 관한 의견모집	
	6.16	인터넷 경제에 대한 일·미 정책협력	
	6.18	전파법 관계심사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훈령방안에 관한 의견모집	
		무선 실현을 위한 주파수확보에 관한 의견모집 결과 및 재의견모집	
	6.25	2010년도 전파자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관련 제안 공모결과	
	6.29	전기통신 사업법 제 35조 제 1항에 근거한 협의재개 명령신청에 대한 전기통신 사업분쟁 처리위원회에 자문	
		단말설비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관련 정보통신 행정우정·행정우정 심의회로부터의 답신 및 이 성령안 및 단말기기 기술기준 적합이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모집 결과	
	6.30	3.9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단말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의견모집 결과	
「SIM 잠금 해제지침」 발표			
2009년도 제 2차 전기통신 서비스 모니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본 경제 산업성	6.10	「기술전략맵 2010」 수립에 관하여	8

